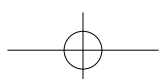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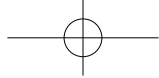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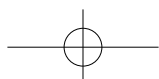
Style 1 조선일보

SPRING /
SUMMER
2023





전국 전시장 • **마이스터모터스** 강남 대치 전시장 02-564-9800 | 부천 전시장 032-671-4700 | 서초 전시장 02-588-3434 | 한남 전시장 02-747-4300 | 인천 전시장 032-471-6100 | 강북 미아 전시장 02-320-9630 | 목동 전시장 02-3660-9999
 • **클리어모토** 강남 신사 전시장 02-516-0033 | 동대문 전시장 02-2241-8888 | 용산 한강대로 전시장 02-595-0070 | 수원 전시장 031-284-3030 | 일산 전시장 031-904-4400 | 구리 전시장 031-563-2292 • **아우토플러스** 송파 전시장 02-6958-0800
 분당 전시장 031-760-1800 | 안양 전시장 031-396-0801 | 판교 전시장 031-696-0100 | 원주 전시장 033-737-6500 • **유카로오토모빌** 남천 전시장 051-611-5500 | 동래 전시장 051-926-5500 | 해운대 전시장 051-995-5500
 창원 전시장 055-245-7788 | 제주 전시장 064-744-9200 • **아우토브이메이지** 대전 전시장 042-862-9944 | 천안 전시장 041-573-9993 | 청주 전시장 043-223-9944 • **지오희우스** 광주 전시장 062-351-9500 | 전주 전시장 063-213-9500
 순천 전시장 061-727-2345 • **자엔비오토모빌** 대구 전시장 053-767-1900 | 포항 전시장 054-249-5000



20 years of the Touareg

투아렉은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SUV다.
지난 20년간 3세대를 거치며 발전한 이 대형 SUV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회사의
모든 기술력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보와 혁신으로 가득 찬 투아렉의 세대별 변화를 살폈다.

폭스바겐 최초의 SUV, 투아렉

2002년 첫선을 보인 1세대 투아렉은 기획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특급 프로젝트였다. 폭스바겐 그룹의 전임 회장인故 페르디난트 피에히 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며 그의 꿈과 열정을 고스란히 담았기 때문이다. 이빨 빠진 그릇처럼 SUV만 속 빠진 라인업이 내내 걸렸던 피에히 회장은 세단처럼 안락하면서 오프로드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럭셔리 SUV를 원했다. 단순히 최고급 SUV가 아닌, 폭스바겐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상징할 수 있는 최고의 차를 바랐던 것.

피에히 전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탄생한 1세대 투아렉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차에 들어간 모든 것이 오버 엔지니어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첨단 기술로 무장한 투아렉은 58cm에 달하는 도강 능력과 최고 45도에 달하는 등판각으로 내로라하는 경쟁 차를 압도했다. 전자기계식 롤 스테빌라이제이션과 여섯 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연속 댐핑 제어 에어 서스펜션이 일등 공신이었다. 투아렉 라인업 안에서도 백미는 투아렉 V10 TDI였다. 당시 폭스바겐 그룹이 갖고 있던 가장 강력한 디젤엔진인 V10 터보 디젤엔진으로 최고출력 313마력을 뽑았고 최대토크는 무려 750Nm였다. 그 결과 2.5톤에 달하는 투아렉은 7.8초 만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달려 나갔다. 강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자그마치 155톤에 달하는 거대한 보잉 747기를 아무런 추가 장비 도움 없이 줄 하나로 연결한 채 바퀴 한 번 헛돌지 않고 150m나 이동시켰던 1세대 투아렉의 모습은 여전히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다. 폭스바겐 자동차 이름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바람에서 따오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멕시코만에서 부는 강한 바람을 일컫는 걸프 스트림(Gulf Stream)에서 착안한 골프, 북극의 바람(Polar Wind)에서 따온 폴로, 초고속 제트 기류(Jet Stream)의 제타 그리고 온화하고 고요한 무역풍(Trade Wind)의 파스트까지. 하지만 투아렉은 예외다. 투아렉이란 이름은 오프로드에서 강인한 성능이 잘 드러나도록 사하라 사막의 거친 환경에서 곳곳이 살고 있는 유목민,



베르베르 투아렉 족에서 따왔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1세대 투아렉은 총 45만 대가 생산됐다.

강화를 위한 경량화

야심작인 투아렉이 큰 인기를 끌자 폭스바겐은 신형 모델 개발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그런 까닭에 2세대 투아렉은 2011년에 이르러야 빛을 볼 수 있었다. 물론 폭스바겐 그룹 산하의 형제 브랜드와 공동 개발하느라 시간이 더 걸린 것도 사실이다. 신형 투아렉의 핵심은 경량화로 무려 395kg이나 가벼워졌다. 문짝을 하나 빼 먹은 게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체중 감량이다. 놀라운 것은 중량은 줄었지만 덩치는 전보다 더 커졌다는 점이다. 휠베이스도 44mm 늘어나 2열 탑승자의 거주성이 크게 좋아졌다. 그러면서도 비틀림 강성은 전보다 5% 더 강해졌다.

신형 모델은 기술적인 진보뿐만 아니라 디자인으로도 큰 사랑을 받았다. 차체에 흐르는 선과 면의 만듦새가 대중 브랜드가 아닌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나 느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과학계 화려하지 않으면서 우아한 실루엣을 갖춘 디자인은 단지 고급스럽기만 한 게 아니라 공기저항을 덜 받도록 전면 범퍼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매끈하게 다듬어졌다.

경량화와 공력 성능 향상에 힘입어 2세대 투아렉의 운동 성능은 발군이었다. 국내 시장에는 V6 TDI 모델과 V8 TDI 두 가지 엔진으로 출시했는데 모두 소비자에게 큰 만족을 줬다. 특히 기존의 V10 TDI를 대체하는 V8 TDI 모델은 배기량이 4,134cc로 줄었지만 최고출력과 최대토크가 모두 크게 향상됐다. 출력은 313마력에서 340마력으로, 토크는 76.5kgf·m에서 81.6kgf·m로 올라갔으니 말 그대로 당시 디젤엔진으로는 최고의 성능이었다. 압권은 가속력이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불과 5.8초(V10 TDI는 7.4초)로 골프 GTI보다도 빠른 수치다. 게다가 연비까지 훌륭해 아직까지도 아껴 타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2세대 투아렉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할 부분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폭스바겐이 시장에 내놓은 양산 자동차 중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집어넣은 모델이기 때문이다. 투



아렉 3.0 V6 TSI 하이브리드는 333마력을 내는 V6 슈퍼차저 엔진에 46마력을 내는 전기모터를 더한 방식이었다. 제동할 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회수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플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합산 최고출력은 380마력, 최대토크는 59.1kgf·m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6.5초 만에 가속, 최고속도는 240km/h였다. 100km 주행에 필요한 고급 휘발유는 8.2L였다. 2010년에서 2018년까지 생산이 이뤄진 2세대 투아렉은 47만 9,000여 대가 소비자를 찾아갔다.

미래를 보는 눈

2018년 3월 중국 베이징에서 최초로 공개한 3세대 투아렉은 새로운 폭스바겐 그룹의 청사진이나 다름없었다. 앞으로 선보일 신차들에 적용할 편의장비와 신기술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먼저 외부에서 봤을 때 눈길을 끄는 것은 헤드램프와 하나로 쪽 이어진 듯 보이는 라디에이터 그릴이다. 3세대로 넘어오며 투아렉은 전장과 전폭이 소폭 늘어났다. 그중 너비는 45mm 넓어졌는데 주간 주행등의 그래픽을 마치 라디에이터 그릴과 끊김 없이 쪽 이어진 것처럼 보이도록 한 까닭에 체감상 더 크게 다가온다.

새로운 헤드램프는 단지 차가 넓어 보이게 하는 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운전자의 야간 시야를 막힘 없이 뺨 풀리게 하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3세대 투아렉에는 128개 LED가 빼곡하게 박힌 IQ.라이트를 비롯해 당시 가장 진보한 디

젤 조명 기술인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폭스바겐 차 최초로 들어갔다. IQ.라이트는 국내 출시 모델 중 투아렉을 비롯해 파사트 GT, 아테온, 티구안, 골프를 거쳐 첫 전기차인 ID.4에까지 적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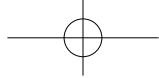
인테리어는 흰소리 조금 보이면 버튼이 두 개밖에 없다. 시동 버튼과 비상등 버튼 빼고는 전부 1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를 통해 기능을 조작한다. 더욱이 양산차 최대 크기인 1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디지털 콕핏과 한 판인 듯 연결돼 있어 시각적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폭스바겐은 이 두 가지 디스플레이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더해 이노비전 콕핏이란 개념을 처음 선보였다.

3세대 투아렉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디지털 세대를 겨냥해 차를 만들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해 투아렉이 마치 스마트폰처럼 개인화는 물론이고 언제나 연결돼 있는 느낌을 주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노비전 콕핏이다. 운전자는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의 레이아웃은 물론 표시하는 정보의 종류, 표시 영역까지 설정할 수 있다.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이 거대한 디스플레이도 단순히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 경험을 최대화하는 데에 진정한 목적이 있다. 3세대 투아렉은 2018년 데뷔 이래 지금까지 16만 8,000대가 넘게 팔렸다. 그리고 3세대를 거치며 전 세계 소비자를 찾아간 투아렉은 자그마치 100만 대가 넘는다. 말 그대로 폭스바겐의 대들보인 셈이다.

1 투아렉은 사하라 사막에 살고 있는 강인한 투아렉 부족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처럼 강력한 성능으로 주목받았다. 아무런 추가 장비의 도움 없이 보잉 747를 견인했던 이벤트는 여전히 많은 사람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2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최고의 성능을 내는 1세대 투아렉은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에 힘입어 2세대 투아렉은 차체 경량화를 바탕으로 성능과 효율성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개선했다. 2세대 투아렉은 다카르 랠리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연속 우승이라는 전대미문의 업적을 달성하며 다시 한번 우수성을 입증했다. 3 3세대로 거듭난 투아렉은 첨단 디지털 기술로 많은 업데이트를 이뤘다. 기존에 갖고 있던 오프로드에서의 대형 세단에 준하는 인락함과 오프로드에서 보여준 강력한 힘로 주파수에 최신 편의장비를 더해 또 한번 프리미엄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4 3세대에 걸쳐 진화한 투아렉은 폭스바겐 정체성의 정수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1세대 투아렉은 폭스바겐 그룹의 전 회장인 페르디난트 피에히 박사의 강력한 의지와 주운을 담은 더욱 특별한 모델이다. 5 투아렉의 우수한 자율주행 기능은 미국 국방성도 인정했다. 2005년 10월, 미국 사부 모하비 사막과 협곡을 완전 자율주행으로 240km나 가로지르는 그랜드 챌린지에서 우승하는 기록을 세운 것. 미국 국방성 산하 핵심 연구개발 조직 중 하나인 고등연구계획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이 주최한 그랜드 챌린지는 2004년 처음 펼쳐졌으며 첫에는 완주한 팀이 없었다.





클라우드 지시오라가 새로운 투아렉을 디자인하며 고민한 부분은 앞으로 나올 폭스바겐 차들에 대한 파급력이었다. 브랜드의 기함인 만큼 단지 고급스럽고 강렬하기만 하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투아렉의 상징성을 생각할 때 선 한 가닥, 점 한 개도 허투루 다룰 수 없었던 그는 신형 투아렉이 가장 진보적인 프리미엄 SUV로 거듭나 이미 시장에서 고급 SUV를 갖고 있는 소비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폭스바겐 그룹의 세로 배치형 엔진 모듈러 플랫폼인 MLB evo를 사용한 신형 투아렉은 전 세대보다 전장, 전폭이 각각 79, 45mm 늘어나고 전고는 9mm 낮아졌다. 한마디로 넓고 낮아져 더욱 역동적인 비율을 갖추게 된 것. 차의 사이즈 변화도 있지만 시각적인 느낌의 차이는 수치에서 오는 변

화보다 훨씬 크다. 차체에 흐르는 선과 면을 최대한 간결하게 만든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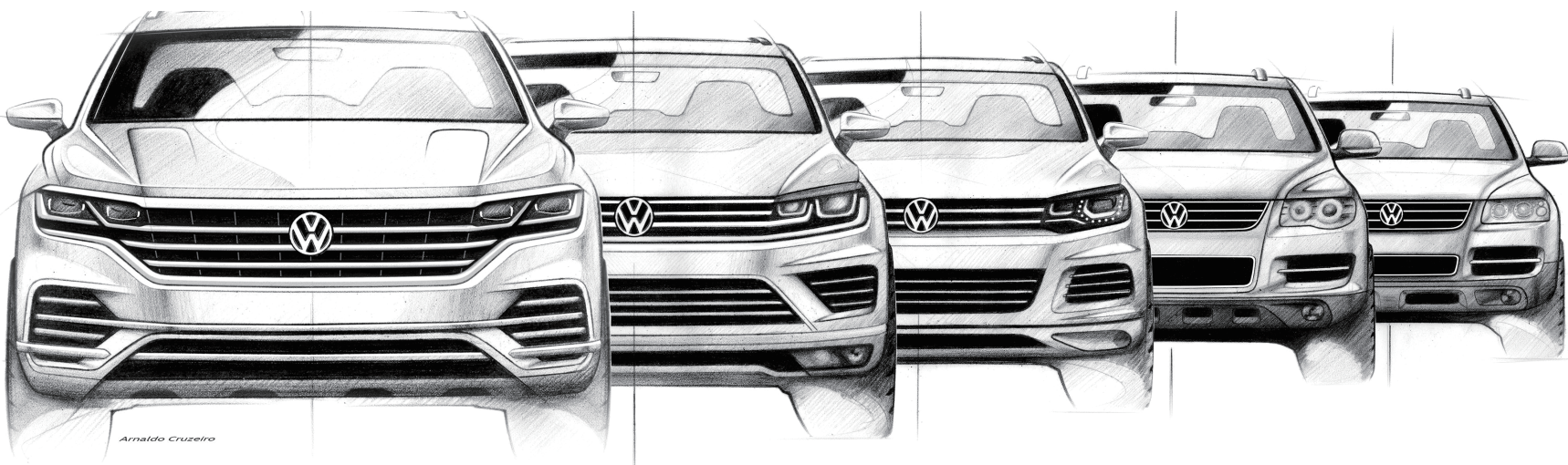
투아렉은 주로 직선을 활용해 긴장감이 흐르도록 했다. 측면은 순풍을 가득 담은 팽팽한 듯 위에 세 가닥의 캐릭터 라인이 칼주름을 잡듯 죽 고어졌다. 특히 헤드램프에서 시작하는 한 줄 선이 그린하우스의 밑면으로 이어지며 루프 라인 과 평행을 이뤄 앞으로 쏟아지는 듯한 형태를 만든다. 또 손잡이 위로 죽 고어진 선은 테일램프까지 뻗어나가며 역동감을 드러낸다. 길이가 4.9m에 육박하는 대형 SUV지만 비 대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앞뒤로 짧은 오버행과 불룩 튀어나 온 펜더가 한몫 단단히 한다. 신형 투아렉의 얼굴은 누가 보더라도 강렬하다. 전면에 직선으로 드리운 라디에이터 그릴 은 크롬까지 입혀 화려하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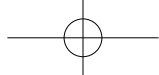
다 기능적인 의미가 더 크다. 라디에이터 그릴과 한 덩어리 처럼 이어지는 IQ.라이트-LED 매트릭스 헤드램프와 함께 낮이든 밤이든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헤드램프에 들어 간 주간 주행등은 마치 라디에이터 그릴에서 뿔어져 나온 것 처럼 쪽 뻗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선보일 폭스바겐 차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정체성의 한 요소다.

신형 투아렉의 디자인에서 그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은 뒷모습이다. 까닭인즉슨, 앞모습이 상당히 화려해 완급 조절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새로 바뀐 폭스바겐 엠블럼과 투아렉 모델명, 그리고 LED 테일램프까지 들어가 기 때문에 이미 디자인 요소가 많아 선 하나 쉽게 집어넣을 수 없는 구성이었다. 결국 수평 형태의 레이아웃을 유지하 되 캐릭터 라인은 생략했다.

Unmistakable Design

브랜드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3세대 투아렉은 플래그십 SUV의 새로운 기준이다. 투아렉을 디자인했던 전 폭스바겐 디자인 총괄, 클라우드 지시오라는 투아렉 곳곳에 폭스바겐 고유의 디자인 언어가 가득하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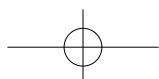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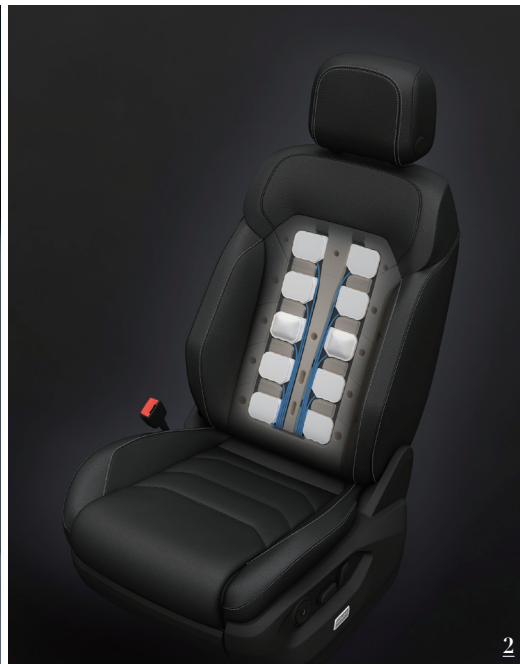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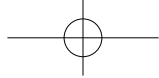
Sophisticated and Luxurious Inte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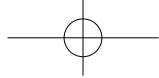
투아렉의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거대한 디스플레이의 향연이 펼쳐진다. 손길이 닿는 곳에는 부드러운 고급 소재들이 즐비하고 눈길이 머무는 곳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빛난다. 투아렉은 플래그십 SUV가 탑승자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신형 투아렉에 들어간 센터 디스플레이는 지금까지 폭스바겐이 선보인 디스플레이 중 가장 큰 사이즈다. '이노비전 콕핏'이라고 이름 붙인 폭스바겐의 최신 기술인데 15인치 대형 TFT 터치 스크린과 12.3인치 디지털 콕핏을 경계 없이 하나로 연결해 운전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관적인 조작까지 가능하다. 운전 집중하며 차가 갖고 있는 수많은 기능을 편히 조작할 수 있도록 투아렉은 센터 디스플레이를 스마트폰처럼 만들었다. 센터 터널에 있는 여러 조작 버튼을 없애고 디스플레이에 통합한 것이다. 그 덕에 투아렉은 운전 중에 시선을 떨어뜨리거나 고개를 옆으로 돌릴 필요도 거의 없다. 디지털 콕핏에 주행 속도나 엔진 회전수, 연료량 표시는 물론 운전자가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 구성해 다양한 정보를 원하는 대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직접 화면을 터치해도 되지만 손날을 옆으로 쓸어 넘기는 제스처 컨트롤 기능으로 오디오 트랙을 넘길 수도 있어 힘들게 메뉴를 찾아 들어갈 필요도 없다. 이 외에도 고휘도의 12.3인치 디스플레이 전체에 내비게이션 맵을 띄우거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3D로 표현하는 등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폭스바겐의 혁신을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윈드 실드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갖춰 운전 집중도는 더욱 올라간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입사했던 클라우스 지시오라는 채광성, 거주성, 적재성을 통해 투아렉 인테리어에 고급 리빙룸에서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을 집어넣었다. 신형 투아렉은 바깥에서 들여다보는 것보다 안에서 내다볼 때 밖이 훨씬 더 잘 보인다. 시트 포지션을 높게 설계한 이유도 있지만 그린 하우스를 넓게 빼고 머리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를 널찍하게 뚫은 점도 노력의 하나다. 별이 잘 들지 않는 집은 오래 있

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는 차를 그릴 때 어떻게 하면 빛을 더 많이 들일까 고민했다. 자연광은 아니지만 신형 투아렉에는 인공광도 상당 부분 들어갔다. 대시보드를 비롯해 도어 패널에 이르기까지 실내 전체를 감싸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리빙룸에서 볼 수 있는 고급 무드등 느낌을 연출한다. 소재 부분에서도 신형 투아렉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부드러운 우레탄 소재의 적용 범위를 넓혔고 스티어링 휠은 질 좋은 가죽으로 꼼꼼하게 감쌌다.

1 직선을 많이 활용한 투아렉은 옆에서 바라봤을 때 근육질 차의 실루엣이 잘 드러난다. 앞뒤 램프를 적절히 부풀려 내부에서는 차폭을 쉽게 가늠할 수 있고 바깥에서는 플래그십 SUV의 힘이 아쉬워 느껴진다. 2,3 크롬을 많이 써 화려한 앞모습과는 다르게 뒷모습은 반짝거리는 요소들을 잘 재했다. 대신 수평으로 폭 뻗은 캐릭터 라인을 비롯해 머물러있지 않아서 쌓여 여러 선이 안정감을 더한다. 테일램프에는 LED 테일 라이트 클러스터가 적용됐다. 다이내믹 턴 시그널도 전 트림에 기본 장착돼 주변 운전자에게 신속한 인지는 물론, 투아렉만의 독특한 개성을 드러낸다. 4 23년형 투아렉에는 과거 최상위 모델이었던 V8 4.0 TDI 모델에만 탑재됐던 최첨단 인터랙티브 라이팅 시스템 IQ, 라이트-LED 매트릭스 헤드램프 & LED 주간 주행등이 기본으로 적용됐다. 헤드램프 하나에 총 128개의 LED 모듈이 멀티펄스 카메라, 주행속도 및 GPS 정보 등을 종합해 발광을 낮추려 맞춰준다. 맑은면 차 운전자나 바로 앞차 운전자의 눈부심을 막으면서 최적화된 시간 시야를 운전자에게 제공한다. 5 투아렉의 얼굴은 단단한 금속을 가공한 듯 견고하다.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이 LED 라이트 시스템과 이어지는 것처럼 연출해 더욱 존재감 있는 자세를 만들어냈다.







투아렉은 패밀리 SUV로 쓰기에 차고 넘치는 실내 공간과 구성도 갖췄다. 앞좌석에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한 에르고 콤포트(Ergo Comfort) 시트를 전 트림에 기본으로 집어넣어 시트의 높이와 길이, 허벅지 받침, 볼스터, 등받이 기울기, 그리고 4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요추 지지대까지 갖춰 총 18방향으로 조절 가능해 탑승자는 체격에 상관없이 완벽하게 시트를 최적화할 수 있다. 게다가 2023년형 투아렉은 앞좌석 통풍 시트와 8가지 모드 중에 고를 수 있는 마사지 기능까지 기본 장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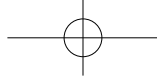
이런 맞춤형 시트는 2열까지 이어진다. 무엇보다 2열 시트는 레그룸이 2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졌다. 또한

리클라이닝과 슬라이딩을 모두 가능케 해 체격에 상관없이 어떤 성인이 않아도 편안한 자세로 이동할 수 있다. 프레스티지 트림부터는 4존 에어컨까지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적재성은 트렁크만 열어봐도 알 수 있다. 신형 투아렉의 길어진 전장과 넓어진 폭은 트렁크를 넓히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 2세대와 비교해 무려 113L나 늘어났다. 뒷좌석을 접지 않더라도 큰 공간이 나오는데 이는 양옆에 여분 공간을 최소화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쓴 것도 한몫했다. 실내에도 도어 포켓을 비롯해 수납공간을 꼼꼼하게 마련했다. 트렁크 내 버튼을 통해 '로딩' 레벨로 설정할 경우, 리어 액슬이 40mm 낮아져 수납성을 올려준다.

1 R-라인에는 블랙 헤드라이트와 R-라인 로고가 들어간 시보나 가죽 시트, 그리고 R-라인 가죽 열대방선 스티어링 휠이 들어간다. 이 밖에도 브러시드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과 R-라인 로고를 발광 처리한 도어 스카프 플레이트도 추가 장착된다. **2** 앞좌석에 기본으로 들어간 에르고 콤포트 시트는 전동식 허벅지 지지대와 쿠션 및 등받이 사이드 볼스터 조절, 요추 지지대를 포함해 18개 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또 23년형에는 8가지 모드를 지원하는 앞좌석 마사지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앞좌석 통풍 및 앞좌석·뒷좌석 히팅 시트가 기본 적용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3** 23년형 투아렉은 한 단계 더 진보한 주차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프레스티지 트림과 R-라인에 적용된 파크 어시스트 플러스 기능을 활용하면 주차 상황에서 조향, 변속, 가속과 감속이 자동으로 조절된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트림과 R-라인은 스마트폰과 연결해 원격으로 주차와 출차가 가능한 리모트 파킹 어시스트 기능도 지원한다. **4** 투아렉 인터리어에서 백미는 워니 워니 해도 인노비전 콕핏(Innovision Cockpit)이다. 외부로 노출된 물리 버튼을 최소화해 심미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기호에 맞게 구성할 수 있게 해 기능성까지 모두 잡았다. 또 12.3인치 디지털 콕핏은 디스플레이 전체에 내비게이션 맵을 띄우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 보조 시스템을 3D로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 **5** 투아렉의 첨단 조명 기술은 인터리어에도 고스란히 이어진다. 30가지 컬러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샵을 빈틈없이 채워 고급스러운 라팅룸 분위기를 연출한다. 홀 스크린은 스마트폰처럼 직관성이 뛰어나다. 디스플레이 하단에 위치한 홈 버튼으로 어느 메뉴 단계에서나 홈 메뉴로 돌아갈 수 있다. 또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홈 화면을 자유자재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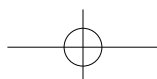
Mission Maxim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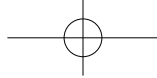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페르디난트 피에히 박사가
폭스바겐 그자체인 SUV를 만들고 싶었던 꿈은
3세대 투아렉에서 더욱 공고해졌다.
플래그십 모델에 걸맞게 폭스바겐의 엔지니어와 디자이너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최고 중의 최고로 우뚝 서려는
신형 투아렉의 핵심 기술 여덟 가지를 추렸다.

1 | EA897 evo3 엔진

2023년형 투아렉은 트윈도징 기술을 더한 EA897 evo3 V6 3.0 TDI 엔진이 새롭게 탑재됐다. 트윈도징 기술은 기존에 한 개였던 촉매변환기를 두 개로 늘려 배출가스 속 질소산화물을 극적으로 줄여주는 효과를 냈다. 휘발유 대비 연소 효율성이 좋아 디젤엔진의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폭스바겐의 무기다.

트윈도징 기술 덕에 배기가스는 줄이면서도 투아렉 본연의 강력한 파워와 뛰어난 효율성은 놓치지 않았다. 새로운 V6 3.0 TDI 엔진은 최고출력 286마력을 3,500~4,000rpm에서 낸다. 최대토크는 61.2kgf·m로 1,750~3,250rpm에서 고르게 뿜어져 나온다. 최신 파워트레인에 힘입어 2023년형 투아렉은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도심이든, 험난한 오프로드든 효율적이고 강력한 성능을 낸다. 투아렉의 연비는 복합, 도심, 고속에서 각각 10.8, 9.6, 12.8km/L에 이른다. 크기를 생각하면 대단한 효율성이다.





2 | 4모션 플타임 올 휠 드라이브 시스템

투아렉은 네 바퀴를 모두 굴리는 사륜구동 시스템이 기본이다. 이를 바탕으로 운전 환경 설정을 일곱 가지* 중에 고를 수 있는 드라이빙 프로파일 선택션 기능이 장착되어 있다. 센터 콘솔에 위치한 다이얼 버튼으로 조작하는 드라이빙 프로파일 선택션은 순식간에 주행 보조 시스템을 미리 정해진 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 선택한 모드에 따라 엔진과 변속기는 물론이고 에어컨, 스티어링 조향 시스템과 4코너 에어 서스펜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반응속도까지 설정된다. (*프리미엄 트림은 여섯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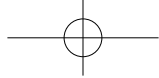
3 | 올 휠 스티어링

회전반경이 큰 대형차는 운전자에게 부담스럽다. 2023년형 투아렉에는 앞바퀴를 조향하면 뒷바퀴도 최대 5도까지 꺾어주는 올 휠 스티어링 시스템이 적용됐다*. 시속 37km 이하로 조향 시 뒷바퀴가 앞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틀어져 회전 반경을 최대 12.19m에서 11.19m로 1m 줄여준다. 시속 38km 이상에서 조향할 경우, 뒷바퀴가 앞바퀴와 같은 방향으로 꺾여 신속한 차선 변경이나 회피 동작 시 주행 안정성을 높여준다. 폭스바겐은 투아렉이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차가 되길 바랐다. 단지 빠르고 코너를 잘 돌아나가고 잘 멈추는 데서 찾는 다이내믹함이 아니라 끊임없이 운전자와 교감하는 차를 만들려고 했던 것. (*프레스티지, R-라인 적용)

4 | IQ.드라이브

플러그십에 걸맞게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IQ.드라이브를 전 트림에 기본 탑재했다. 특히 IQ.드라이브의 대표적인 시스템인 트래블 어시스트는 전 구간에서 주행 편의성을 극대화해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춰준다. 또한 전방 크로스 트래픽 어시스트를 통해 교차로 진입 시 좌우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감지해 시속 10km 이하 주행 시에는 긴급정지하고 시속 30km까지는 경고를 해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준다. 투아렉에는 능동적인 탑승자 보호 시스템인 Pre Crash 360°가 적용되었다. 이를 통해 전방, 측방, 후방 등 차 주변에서 위험이 감지되거나 전복 또는 다중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모든 창문과 선루프를 닫고 안전벨트를 조여 탑승자를 보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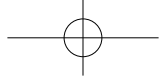
5 | 에어 서스펜션

대형 세단에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투아렉은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차체 높낮이를 최저 -40mm부터 최대 70mm까지, 총 110mm를 조절할 수 있는 멀티제임버 에어 서스펜션을 기본 장착했다. 이를 통해 오프로드 주파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최상의 안락함을 유지해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아우르는 편안한 승차감을 이끌어냈다. 투

아렉의 에어 서스펜션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조절되기도 하고 센터 콘솔에 있는 다이얼 버튼을 이용해 임의로 조절할 수도 있다. SYNC 모드를 선택하면 주행 모드에 따라 최적의 차체 높이를 자동으로 세팅한다. 로딩(Loading) 레벨 모드는 앞바퀴 축을 25mm, 뒷바퀴 축을 40mm 낮춰 짐을 쉽게 싣고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트렁크의 로딩 레벨 버튼이 있는데 누를 경우 뒷바퀴 축만 40mm 낮아진다. 로드(Road) 레벨에서는 시속 120km 이상 주행 시 공기저항을 줄이고 주행 안정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상고가 15mm 낮아진다. 나아가 시속 210km 이상으로 주행할 경우엔 서스펜션 레벨을 추가로 10mm 더 낮춘다. 오프로드(Off-Road) 레벨은 차체 높이를 25mm 높여 험로 주파 능력을 올린다. 주행속도가 시속 70km를 넘으면 에어 서스펜션이 로드 레벨로 자동 조절된다. 마지막으로 오프로드+(Off-Road+) 레벨은 차체 높이를 70mm 높여준다. 가장 험난한 길에서 주파 성능을 극대화해 주는 것이다. 주행속도가 시속 25km를 넘으면 서스펜션 높이는 자동으로 오프로드 레벨로 조절된다.

6 | IQ.라이트-LED 매트릭스 헤드램프

2023년형 투아렉은 폭스바겐의 첨단 라이트 기술인 IQ.라이트-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모든 트림에 들어간다. 좌우 헤드램프에는 각 128개, 총 256개의 LED가 들어 있으며 순식간에 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데이터, GPS 신호, 조향 각도와 현재 주행속도를 계산해 특정 LED를 활성화한다. 카메라를 기반으로 하는 IQ.라이트-LED 매트릭스 헤드램프 시스템은 탑승자에게 언제나 최상의 시야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야간 주행 시 기존의 헤드램프로는 빨리 인식할 수 없었던 사람과 물체, 다른 차나 동물 등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수치로 말하면, 2세대 투아렉에 쓰였던 제논 헤드램프와 비교할 때 신형 투아렉의 상향등 조사거리는 100m 더 길다. 테일램프에도 LED 기술이 빠짐없이 적용됐다.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다이내믹 턴 시그널까지 갖춰 주변 운전자에게 빠른 인지는 물론, 역동적인 외관으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7 | 파크 어시스트 플러스

대형 SUV는 덩치가 큰 만큼 주차할 때 신경 쓸 게 더 많다. 운전자의 주차 부담을 덜기 위해 투아렉은 똑똑한 기능을 하나 갖췄다. 프레스티지 트림과 R-라인에 적용된 파크 어시스트 플러스 기능을 활용하면 평행주차나 직각주차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스티어링, 기어 변속,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조절을 스스로 하며 주차한다. 스마트폰과 연결해 원격으로 주차와 출차가 가능한 리모트 파킹 어시스트 기능도 지원한다.

8 | MLB evo 플랫폼

덩치가 큰 차일수록 운전자는 차의 움직임을 더 크게 느낀다. 투아렉은 폭스바겐 그룹의 MLB evo 플랫폼을 바탕으로 만들어 기본적으로 골격이 아주 웅장하다. 이런 새시 특성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개발 방향을 잡은 폭스바겐의 개발진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프리미엄 SUV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3세대 투아렉은 유연한 가운데 안정적인 주행 질감을 갖는, 전형적인 플래그십 SUV로 탄생했다.



2002

Top of the Top, 투아렉 V10

문장을 읽다 보면 숫자만으로도 압도당할 때가 있다. 10기통, 313마력, 제로백 6.9초, 그리고 무엇보다도 76.5kgf·m라는 최대토크! 두 개의 터빈을 달고 근육질의 후드 아래를 가득 채운 5L V10 TDI 엔진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2002년 고성능 디젤엔진의 정점을 찍었다.



2004

진짜 한정판, 투아렉 W12 스포트

2004년 폭스바겐의 제품개발 엔지니어들은 투아렉 정도의 차라면 당연히 폭스바겐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엔진을 품은 스페셜 버전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그들은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무려 450마력을 내는 6L 배기량을 가진 W12 엔진을 투아렉에 집어넣은 것이다. 딱 500대만 한정 생산한 투아렉 W12 스포트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가속을 단 5.9초 만에 끝냈다.



2005

영화 주인공이 된 투아렉 쿵

2005년, 영화 <킹콩>에서 투아렉은 주연배우들이 험난한 정글을 탐험하는 탐사차로 등장해 영화 내내 화면을 누볐다. 스크린에 서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는 실제로 영화 속 등장한 '투아렉 쿵'을 구입할 수 있었다. 가격은 4만 8,225유로였다. 4,200유로를 내면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을 비롯해 실버 루프 크로스바 등이 포함된 쿵 패키지를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었다. 2열 승객이 이동하며 영화도 볼 수 있게 2열 엔터테인먼트 패키지와 무선 헤드셋도 갖췄다.

투아렉은 세계 일주도 가능케 한다

2004년 7월 18일, 저널리스트와 일반고객, 그리고 프로 드라이버로 구성된 다섯 팀이 결성됐다. 이들은 174마력을 내는 기본형 투아렉을 타고 미국 알래스카를 출발해 세계 여행을 떠났다. 무려 17개월에 달하는 여행은 이듬해인 2005년 10월 29일 독일 볼프스부르크에 도착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북미, 호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까지 총 다섯 개 대륙을 가로지르며 달린 거리는 무려 7만 7,000km!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세계 일주를 폭스바겐은 '투아렉 익스피리언스 360°' 프로그램으로 실현시켰다.



Record King

3세대를 거치며 발전한 폭스바겐 투아렉은 역사에 남을 무수한 기록을 남겼다. 잘 드러나지 않은, 폭스바겐의 아카이브에만 갖고 있기에 너무나 가까운 짝막한 이야기 열다섯 가지를 꼽아봤다.



2007

오프로드의 제왕, 투아렉 R50

한때 투아렉 R50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오프로드 SUV로 이름을 떨쳤다. 최고출력 350마력에 86.7kgf·m의 최대토크를 내는 V10 TDI 엔진, 바퀴는 21인치 립에 폭 295 사이즈 타이어를 신고 에어 스프링 서스펜션을 갖춰 거친 노면도 잘도 달려나갔다. 파랑계 칠한 브레이크 캘리퍼와 도드라지는 휠 하우스는 멀리서 봐도 한눈에 R50임을 알아볼 수 있게 했다.



2008

바자 사막을 점령한 몬스터 트럭

사막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레이스 중 바자 1000에 버금가는 광란의 경주는 없다. 폴 스피드로 달려온 갖가지 장애물을 피하는 레이스를 보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사실 폭스바겐은 이미 비틀을 바탕으로 만든 버기카로 바자 1000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과거의 영광을 재연하기 위해 폭스바겐은 2008년, 최신 투아렉 트로피 트럭을 선보였다. 차체는 탄소섬유로 만들고 강한 전용 휠로 험로 주파성을 한껏 끌어올렸다. 그리고 레이서를 보호하는 롤케이지까지. 승리의 성공 법칙을 충실히 따른 몬스터 트럭은 바자 사막에 또 한번 폭스바겐 바람을 일으켰다.

2009

다카르 랠리에서 진가를 발휘한 투아렉

폭스바겐이 다카르 랠리에 다시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2004년이다. 그리고 꾸준한 도전 끝에 재참가 6년 만인 2009년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다카르 랠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거친 랠리다. 오죽하면 죽음의 레이스라는 악명을 떨칠까. 레이스 투아렉은 무시무시한 다카르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우승이라는 대역사를 썼다.



실크 웨이 랠리(Silk Way Rally)를 독차지한 레이스 투아렉

레이스 투아렉 2는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주목받았다. 재밌는 점은 성능뿐만 아니라 바다키티까지 인기를 끌었다는 것. 특히 동서양 문명 교통로였던 실크로드를 달리는 실크 웨이 랠리에서는 레이스 투아렉 2의 바다키티가 인기를 끌어 폭스바겐 전문 튜너인 호펠레는 실크 웨이 랠리 에디션이라는 바다키티까지 출시했다.



**미국 국방성도 인정한
투아렉의 자율주행 기능**

지금이야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자동차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2005년 만 해도 자동차 자율주행은 공상과학소설에나 등장하는 얘기였다. 하지만 허무맹랑하다는 사회 분위기에 맞서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진들은 레이싱 팀을 꾸려 부단히 노력했다. 그들은 자율주행 연구를 위해 저 지 없이 폭스바겐 투아렉을 선택했다. 그리고 마침내 2005년 10월 8일, 미국 국방성 산하 핵심 연구개발 조직 중 하나인 고등연구계획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에서 주최한 그랜드 챌린지 우승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 참가한 23팀 중 결승선을 넘은 차는 오직 다섯 대뿐이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서부 모하비 사막과 협곡을 완전 자율주행으로 240km 가로질러 결승선에 다다르는 그랜드 챌린지는 2004년 처음 펼쳐졌으며 첫 해에는 아무도 완주하지 못했다. 스탠퍼드 레이싱 팀이 투아렉으로 우승한 2회 대회는 세 개의 좁은 터널을 비롯해 100군데에 이르는 예리한 방향 전환과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옆길에 줄기차게 이어져 대회 난도가 더욱 올라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팀, 지에트로의 비밀 무기

탐험가 레이너 지에트로(Rainer Zietlow)는 투아렉으로 세계기록을 네 개나 경신했다. 먼저 2005년 1월, 칠레에서 해발 6,081m에서 운전해 세계 최고도 주행 기록을 세웠다. 그로부터 몇 해 뒤에는 세계 최장거리 주행 기록을 세 개나 갈아치웠다. 첫 번째는 파나마리카나에서 2011년 7월 2일부터 13일까지, 장장 11일 하고도 17시간 동안 달린 거리가 2만 3,000km다. 이어 노르웨이 노스케이프에서 남아프리카 아굴라스 케이프까지 달려 또 하나의 기록을 경신했다. 당시 지에트로는 큰 사고를 당해 에티오피아에서 13일간 수리를 위해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 10월, 21일 16시간 동안 1만 7,000km를 달리는 기록을 세웠다. 마지막 기록은 반대로 아굴라스 케이프에서 시작해 노스케이프로 달려며 세운 것으로 9일 4시간 동안 1만 7,568km를 달렸다.

2006

보잉 747을 견인한 투아렉

한 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장면. 2006년 투아렉은 155톤에 달하는 보잉 747을 격납고에서 끌어내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벤트에 쓰인 에어 프랑스 여객기는 영화 <007 카지노 로얄>에도 쓰인 적이 있다. 2014년엔 <Fifth Gear> 매거진에서 다시 한번 이벤트를 재연했다. 이번엔 단지 격납고에서 끌어낸 정도가 아니라 활주로에서 비행기를 뒤에 달고 주행하는 장관을 연출했다.



2010

레전드들의 재회

2010년 1월, 폭스바겐은 다카르 랠리에서 1위, 2위, 3위를 무자비하게 쓸어버리는 기염을 토했다. 석 대의 폭스바겐 레이스 투아렉 2가 나란히 포디엄 앞에 멈추는 순간, 관중들은 1980년 다카르 랠리에서 폭스바겐의 일티스 석 대가 포디엄을 가득 채웠던 30년 전을 떠올렸다.



2011

레이스 투아렉 3 카타르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술을 가장 정교하고 완벽하게 가다듬는 방법은 바로 사막에서 테스트하는 것이다. 지난 2011년, 카타르 오토쇼에서 처음 선보인 레이스 투아렉 3 카타르는 다카르 랠리 3연속 우승을 통해 쌓인 노하우를 가져와 콘셉트카에 적용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레이스 투아렉 3을 바탕으로 만들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가속을 6초 이내에 끊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랠리 머신에서 누릴 수 있는 힘과 주파성도 더했다. 게다가 탄소섬유나 나파 가죽, 질 좋은 누벅 소재를 인테리어에 활용해 사막보다는 컬렉터들의 버킷리스트에 들어가기 쉬운 구성을 갖췄다.

투아렉 골드 에디션

투아렉 골드 에디션에서 반짝이는 부분은 전부 진짜 금이다. 2011년 카타르 모터쇼를 위해 폭스바겐이 제작한 이 어마어마한 투아렉은 말 그대로 24캐럿 금으로 차체를 도배하다시피 했다. 22인치 림과 루프 레일, 그리고 윈도 프레임과 사이드 미러캡에 이어 에어 인테이크 그릴까지. 물론 도금을 한 부분도 있다. 바로 투아렉 V8 엠블럼과 트렁크 게이트 프로젝트션이다.



2017

실크로드를 달린 서른 대의 투아렉

투아렉 탄생 15주년을 맞아 서른 대의 투아렉이 실크로드를 따라 대모험에 나섰다. 15일 동안 펼쳐진 대장정은 콘보이의 호위를 받으며 중국 허난성 뤼양에서 시작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까지 5,200km를 달렸다.



A passion for life

혼신을 다해 개발한 자동차는 오래도록 사랑받는다.
한국 시장에 온 지 1년 반이 된 폭스바겐의 사샤 아스키지안 사장은
제품의 본질에 집중하는 투아렉을 탈 때마다 힐링을 받는다고 말한다.
투아렉이 삶을 더 밝게 빛나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하는
그의 찬사를 들어보자.



1 오랜만에 투아렉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투아렉을 모르는 독자들에게 차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투아렉은 프리미엄 사양, 첨단 기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퍼포먼스, 그리고 매력적인 가격까지 모든 것을 겸비한 탁월한 SUV입니다. 폭스바겐은 투아렉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업무, 가족, 일상 등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모두 고려해 설계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투아렉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나 한 회사를 대표하는 CEO 또는 비즈니스맨/우먼으로서, 나아가 내 일상 속 로드 파트너가 되어 줄 차를 고민하는 분에게 가장 이상적인 차라고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투아렉은 도심형 SUV의 태동기였던 2000년대 초반, 폭스바겐의 기술력과 위엄을 증명할 최고의 차를 만들겠다는 엔지니어들의 꿈과 열정으로 탄생했습니다. 1세대 투아렉은 무려 155톤에 달하는 보잉 747기를 성공적으로 견인했고, '투아렉 익스피리언스 36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 세계 5개 대륙을 횡단해 7만 7,000km 이상을 주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상 가장 높은 길로 알려진 칠레 안데스산맥의 해발 6,081m 높이까지 올라가는 전무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투아렉이 등장한 지도 2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투아렉은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 한국에서 폭스바겐 브랜드의 기함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이 매력적인 차를 스타일조션 독자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 앞서 CEO나 비즈니스맨/우먼들에게 이상적인 차라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투아렉은 디자인 면에서 강렬하지만 조용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진보적이고, 견고하며, 과시하지 않고 본업에 충실한 CEO들의 모습은 투아렉과 많이 닮아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삶을 대하고자 하는 마인드와도 닮아 있고요. 제가 아는 몇몇 CEO들 또한 투아렉의 이러한 디자인 철학에 찬사를 보냅니다.

트윈 도징 기술을 더해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한 V6 엔진의 주행 질감 또한 감탄할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강력한 파워뿐 아니라, 넓은 rpm 실용 영역에서 최대토크가 발휘돼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시내 주행에서도 커다란 차체의 움직임이 더욱 날렵하고 기민하게 만들어 주는 등 매우 민첩한 핸들링과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아렉과 함께 장거리 출장을 떠난다면, 폭스바겐 디젤엔진 특유의 뛰어난 연비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 번 더 놀라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주유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1,000km가 훨씬 넘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왕복해도 충분합니다. 합리적인 성향의 CEO 또는 비즈니스맨/우먼이라면 투아렉을 선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돌아보면, 투아렉은 어떤 상황에서도 탁월한 신뢰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좁은 골목길에서 올 휠 드라이빙 시스템과 파크 어시스트



가능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투아렉의 첨단 기술로 인해 좁은 길에서의 운전과 주차는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이 같은 투아렉의 장점 덕분에 저는 한 번도 미팅에 늦어본 적이 없습니다.

3 한국에 부임하신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여실히 느낍니다. 평일에는 업무에 집중하고, 주말 여가 시간에는 운동을 하거나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를 찾아다니며 생동감 넘치는 한국의 매력을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헬스장을 가거나 자전거, 스키를 즐겨 타는 편인데, 이런 액티브한 운동을 좋아하는 저에게 투아렉은 훌륭한 스포츠 메이트입니다. 스포츠를 즐기다 보니 마사지 기능이 있는 투아렉의 히팅 시트를 특히 좋아합니다. 운동뿐 아니라 고단한 긴 하루를 보낸 후, 마치 나에게 주는 선물, 혹은 퍼스널 케어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국의 곳곳을 여행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따라 드라이브하는 것도 즐기는 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할 때는 투아렉의 서스펜션 기능이 빛을 발합니다. 부드러운 승차감뿐 아니라 마치 마법 양탄자를 타고 길 위를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을 주죠. 평소 장거리 여행을 불편해하시는 저의 장모님도 투아렉의 탁월한 승차감 덕분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을 즐기고 계십니다. 이럴 때 투아렉이 진정한 패밀리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반면 혼자 있을 때는 투아렉의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전환해 탁월한 주행 성능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향상되는 차량의 빠른 반응성은 드라이브를 향한 저의 열정과 딱 맞는 조화를 이룹니다. 모든 업무를 끝낸 퇴근 후에는 혼자 투아렉을 타고 서울의 한강을 따라 달리며 V6 3.0 TDI 엔진의 강력한 파워가 주는 짜릿한 경험을 만끽하곤 합니다. 정확한 핸들링에서 오는 투아렉의 파워풀한 퍼포먼스와 다이내믹한 주행은 언제나 저를 설레게 합니다.

4 투아렉과 함께한 순간 또는 경험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순간은 제 아이와 함께했던 '앰비언트 라이트'의 재발견입니다. 사실 저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요. 이런 생각을 완전히 바꿔준 것이 바로 제 아이입니다. 유명 테마파크의 아름다운 레이저쇼처럼, 아이에게 투아렉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항상 멋진 경험을 제공합니다!

차 타는 걸 지루해하는 아이가 레드, 그린, 블루 등 30가지 다채로운 컬러의 앰비언트 라이트를 신기해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역시 행복해지곤 합니다. 폭스바겐을 떠올리

게 하는 파란빛은 차분한 느낌을 주고, 강렬한 빨간빛은 보다 스포티한 감성을 자아내는 등 앰비언트 라이트 각각의 컬러는 실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줍니다.

그 후로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면 문득 아이가 즐거워했던 기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웃음이 지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앰비언트 라이트를 심분 즐기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차 안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조명에 둘러싸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5 주변에서 폭스바겐 차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많을 것 같습니다. 투아렉은 특히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지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투아렉은 모든 사람의 삶에 그 어떤 방식으로든 완벽히 녹아들 수 있는 차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특히 CEO, 비즈니스맨/우먼 그리고 가족들에게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투아렉의 시대를 초월하는 견고한 외관 디자인은 시각적 만족감을, 스마트한 첨단 기능과 에어 서스펜션으로 인한 인락한 승차감은 직접 운전대를 잡을 때나, 뒷좌석에 몸을 맡길 때나 가장 이상적인 순간을 만들어 주죠. V6 엔진에 시동을 거는 순간, 디지털 클러스터와 광활한 디스플레이 패널로 구성된 이노비전 콕핏은 시원한 개방감과 함께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선사합니다.

그리고 실용성과 안전성에 관한 한, 저는 투아렉이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먼저 넓은 적재 공간은 패밀리 SUV에 적합하죠. 한강으로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가기 위해 자전거를 쉽게 실을 수도 있고, 스키 장비를 챙길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캠핑을 즐기는 가족들이 많은데, 온 가족이 탑승하고도 상당한 양의 캠핑용품들을 넣을 수 있어 실용성 부분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성은 더욱 돋보이죠. 폭스바겐의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IQ.드라이브'와 풍부한 안전 시스템은 가족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주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시속 0 ~ 250km/h의 속도 구간에서 능동적으로 차량을 보조해주는 트래블 어시스트는 운전의 피로도까지 줄여줍니다.

6 마지막으로 스타일조선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빛나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소중히 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독자분들의 일상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줄 폭스바겐의 투아렉은 인생에서 꼭 한 번 만나봐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일에는 각자의 일을,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하는 분들, 여가 시간 때는 지인들과 즐거운 골프 활동을, 또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분들까지. 폭스바겐 투아렉이 변화시킬 일상의 순간들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